변함없으면 변화의 중심된다

(이사야 16:1~14)

1.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2.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3.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4.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변함없으면 변화의 중심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변함없으면 변화의 중심된다'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다면 형편이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부심합니다. 그리고 선택된 대책을 행동에 옮기면서 환경과 형편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환경에 성공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금세 또 다른 변화의 압박에 처하게 됩니다.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원하는 대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화의 압박감이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이 악순환은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습니다. 삶의 환경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역사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중심축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중심축이 되어야만 하는데, 삶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움직임이 없고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거처가 변함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변함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마음이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처에 머물면서 충분히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하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변화는 나를 중심축으로 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삶의 환경 자체의 변화를 손에 쥐고 씨름하는 동안에 삶의 한 부분이 변화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변화가 되더라도 또 다른 변화의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의 환경적 변화에서 마음이 떠나 변함없는 거처에 머무르게 될 때에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나의 마음을 중심으로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함없는 거처에 머무르기 위해서 마음은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거처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돈을 마음의 거처로 삼은 사람이 있다면 경제상황은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이렇게 변하는 마음의 거처는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변화하는 중에는 기쁨과 만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건강을 마음의 거처로 삼았다면 돈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변화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또 다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건강을 마음의 거처로 삼았다면 행복과 만족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거처삼아 머무를 때에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만이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불만족한 마음으로 삶의 환경을 붙잡고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면 추구의 달인은 될 수는 있어도 성취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성취로 이어진다고 해도 또 다른 추구의 필요성이 생겨나기 때문에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 붙박이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십자가에 붙박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가 우리 마음이 붙을 수 있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하나님께 붙박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붙은 마음 상태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이 세상을 거처 삼은 마음 상태의 종식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붙었던 마음은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붙박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기만 하면 육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삶의 영역전체에는 내 마음이 중심축이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진행될 것입니다.
절대로 환경적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면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진 마음은 내 삶을 변하게 하는 중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나야

만 하는 일입니다. 친구와 만날 때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하나님으로 행복한 나의 마음을 중심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칭기즈칸과 알렉산더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점령했지만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셨던 것처럼 갈릴리 지방의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주전과 주후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류의 역사는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 1분 1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붙박이로 사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만큼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완벽한 붙박이가 되셨던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마음을 둘 때에 하나님께 붙박이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중심으로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나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한다고 합니다. 변화를 앞질러 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어서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마음에 변함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삶의 진정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에 대한 두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예언과 비교할 때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모압에 대해 구원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 이하를 보면 모압이 제시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성취되리라는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모압에게 제시되고 권고된 구원의 길은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삶의 환경에 대한 변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모압이 양들을 유다에게 보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이 땅 통치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석서들은 이것을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만, 멸망을 피하기 위한 조건으로 양들을 조공으로 바치는 것은 이해하기에 문맥상 어색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소 성급한 해석이 나온 이유는 일찍이 북 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모압이 조공을 바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 십만 마리와 숫양 십만 마리의 양털을 바칩니다. 당

시 조공의 형태로써 양을 직접 바치는 것이 아니고 부산물로써의 양털을 바쳤던 것입니다.
‘셀라’는 양이 유명했던 모압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양을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단순히 남 유다의 통치자에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주변국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선민들만이 선택받았음을 의식하여 특별히 강조할 때에 시온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선민임을 강조해서 표현하실 때에 시온의 딸로 칭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시온으로 칭한 이유는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항상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생활화하고 있지는 않았을지언정 규정에 따라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을 죽여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어린양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따라서 상번제는 마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거처 삼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로 바쳐지는 어린양의 의미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도 성전에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돌아봅니다. 사업장에 나가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상번제를 기억하며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붙박이가 되어 있는지, 어디를 거처삼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처를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대로 마음이 우선시하여 가장 크게 실감하는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시하고 더 크게 의식한다면 이 마음은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러한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삼으면 1절의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시온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어린양을 보내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거처로 삼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시온에서 상번제가 드려짐을 기억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방민족이었던 모압에게 이러한 선민의 신앙을 촉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5절을 보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메시아를 예표 하는 다윗이 모압 여인 룻의 증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유다가 가진 여호와 신앙을 모압에게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과의 연관성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신앙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붙박이가 된 마음 상태를 죽이고 하나님께

로 돌이킬 수 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여기서 2절을 보면 또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생략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1절에서 밝힌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마음을 상번제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모압의 딸들은(모압의 백성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남쪽에는 사해가 있었습니다. 모압은 이 사해의 동편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또 더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북부에서 시작하여 32km를 흘러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 바로 아르논 강입니다.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라는 말은 이 나루터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버린 생선을 주워 먹기 위해 많은 새들이 배회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보금자리를 잃은 새끼 새의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는 1절에서 촉구한대로 마음을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에 두지 않고, 상번제의 어린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지 않으면, 공중을 배회하는 새나 보금자리를 잃고 땅에 떨어진 새끼 새와 같이, 삶의 변화에 따라 끝없이 배회하게 되리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예언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의 특별한 문학적 감수성이 느껴집니다.
앨버트로스나 독수리처럼 큰 새들은 많은 시간을 공중에서 유유자적하며 보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람을 잘 타는 새일지라도 공중을 거처로 삼는 새는 없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일지라도 거처는 땅에 잡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들에게 공중을 날 수 있는 날개를 주셨지만, 날개를 달고 있는 어떤 새도 공중에 거처를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에게는 날개를 주셨고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를 주셨습니다. 날개는 일상적으로 공중을 날게 합니다. 그러나 공중을 거처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 일상적으로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땅을 거처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비교는 이사야의 놀라운 문학적 통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와 다르게 인간은 몸을 가지고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거처는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이미 땅을 거처로 삼았다면, 시온의 번제단에서 어린양이 죽는 것처럼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상번제에서 드려지는 어린양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중을 나는 새이지만 공중에 거처를 잡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육체로 땅을 살아가지만 마음은 땅을 거처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해 동편에 있던 모압의 위치는 동서남북으로 열려있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지 않기에 역사적으로 모든 방향에서 침략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변화무쌍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살 길은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한편 3~4절을 보면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 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쫓겨난 자들'이란 유다를 의미합니다. 유다가 도망가고 쫓겨나게 되겠지만 예루살렘의 성전까지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락하신 유다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유다와 운명을 같이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허락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모압의 입장에서는 유다가 흔들림은 곧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쫓겨날지라도 성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다를 좋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이 성전을 마음에 둘 수 있는 가능성은 오직 이것뿐이었던 것입니다.
4절의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앗수르의 운명을 뜻합니다. 당시의 대세였던 앗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본다면 또 다른 대세에 발맞추어서 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적 대세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대세에 마음을 맞추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의 형편이 남 유다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썩었고 부패했다며 여러 가지 비난을 합니다. 물론 실제로 썩었고 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정 지긋지긋하고 견딜 수가 없다면 예배당에서 뛰쳐나올지언정 십자가의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대세로 여겨지는 어떤 대상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상번제에서 죽는 어린양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대세에 먹혀서 붙으려는 나의 마음을 십자가에서 끝없이 죽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면 나타나는 일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같이 삶이 견고하여 지고, 마음에는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 주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환경적 변화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이것들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어야합니다. 그러면 모압과 같이 사방으로 개방되어서 적들에게 둘러싸일지라도 오히려 그 중심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압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꼭 기억해야 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어린양이 죽는데, 너희 마음과 동일시되는 어린양을 성전으로 보내서 세상에 붙박이 된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던 모압도 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모압에게 권고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압은 교만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냉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 붙박이가 되는 변함없는 마음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삶의 영역에서 변화의 중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에 붙박이가 된 나의 마음이 끊임없이 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붙박이로 있게 됨을 통하여 나의 삶의 영역 전체의 중심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